

2015년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심사평

- 일시 : 2015. 4. 7(화) - 4. 11(토)
- 장소 : 동숭아트센터 5층 소극장
- 심의위원 : 이병훈, 김성희, 이은경, 김미도, 김동현

2015년 연극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에는 예심을 거쳐 선정된 총 15편의 작품이 참여했다. 2015년 시범공연 지원공모 선정작 10편과 2014년 대본공모 선정작 5편이 심사대상이었다. 심사위원들은 대본, 지원신청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독회(시범공연 실연)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8작품을 선정하였다.

‘창작산실’은 우수한 창작극을 개발하기 위해 희곡창작부터 재공연에 이르기까지 공연제작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능력 있는 신인작가를 발굴하고, 완숙한 기성작가들을 격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파격적으로 지원금 규모와 선정 작품 수가 확대되어 연극계의 관심과 기대도 더욱 커졌다. 대본공모에 224편, 시범공연 지원공모에 86편이 응모하여 예년보다 경쟁률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회심사 이전 15편의 선정 희곡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 심사위원 모두는 한 가지 사항에 동의했다. ‘창작산실’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10편이란 선정편수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만을 선정하자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희곡의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쳤고, 작품 간 편차도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는 <고제>, <달빛안갯길>, <떠도는 땅>,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방문>, <우주의물방울너는영원해>, <토일릿피플>, <하나코>의 8개의 작품만 선정되었다.

선정된 8편의 작품은 사실적인 작품에서부터 이미지를 강조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스타일이 다양했다. 우리 사회의 견고한 부조리를 드러낸 작품에서부터 인문학적 사유를 담아낸 작품에 이르기까지 주제의 층위도 넓었다. 하지만 일부 참여단체는 독회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히려 희곡의 매력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연출가와의 조합, 배우의 연기스타일이 어울리지 않아 희곡의 장점이 무대 위에 온전히 표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선정된 8편의 작품은 희곡의 완성도나 연극적 구조, 상상력, 문제의식 등에서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들이지만 공연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공연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되어 ‘창작산실’의 이름에 걸 맞는 작품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